



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09 Summer Vol.34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서 회장·의장 추대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경북의사회 임원 및 시군 의사회장 워크숍
2009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 안내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Global 복합개량신약 아모잘탄 탄생!

CCB
아모디핀[®] 정



ARB
오잘탄 정

Amosartan

세계가 함께 할 한국 제약기술의 쾌거!

- 세계최초의 Amlodipine camsylate+Losartan K 복합개량신약으로 1상, 2상, 3상 임상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 Amlodipine camsylate, Losartan K 모두 한미의 기술력으로 생산되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순수 국산화 의약품입니다.
- 단일제, ARB+이뇨제 복합제에 비해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냅니다.



세계최초 Amlodipine camsylate + Losartan K 복합제
아모잘탄[®] 정 5/50mg 5/100mg
(아모디핀칼실산염/로사탄칼륨)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 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4mg

효능·효과

1. 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자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2. 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3. 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내분비 장애 5. 류마티스성 장애
6. 안과 질환 7. 위장관계 질환 8. 호흡기계 질환
9. 혈액 질환 10. 악성 종양성 질환 11. 부종성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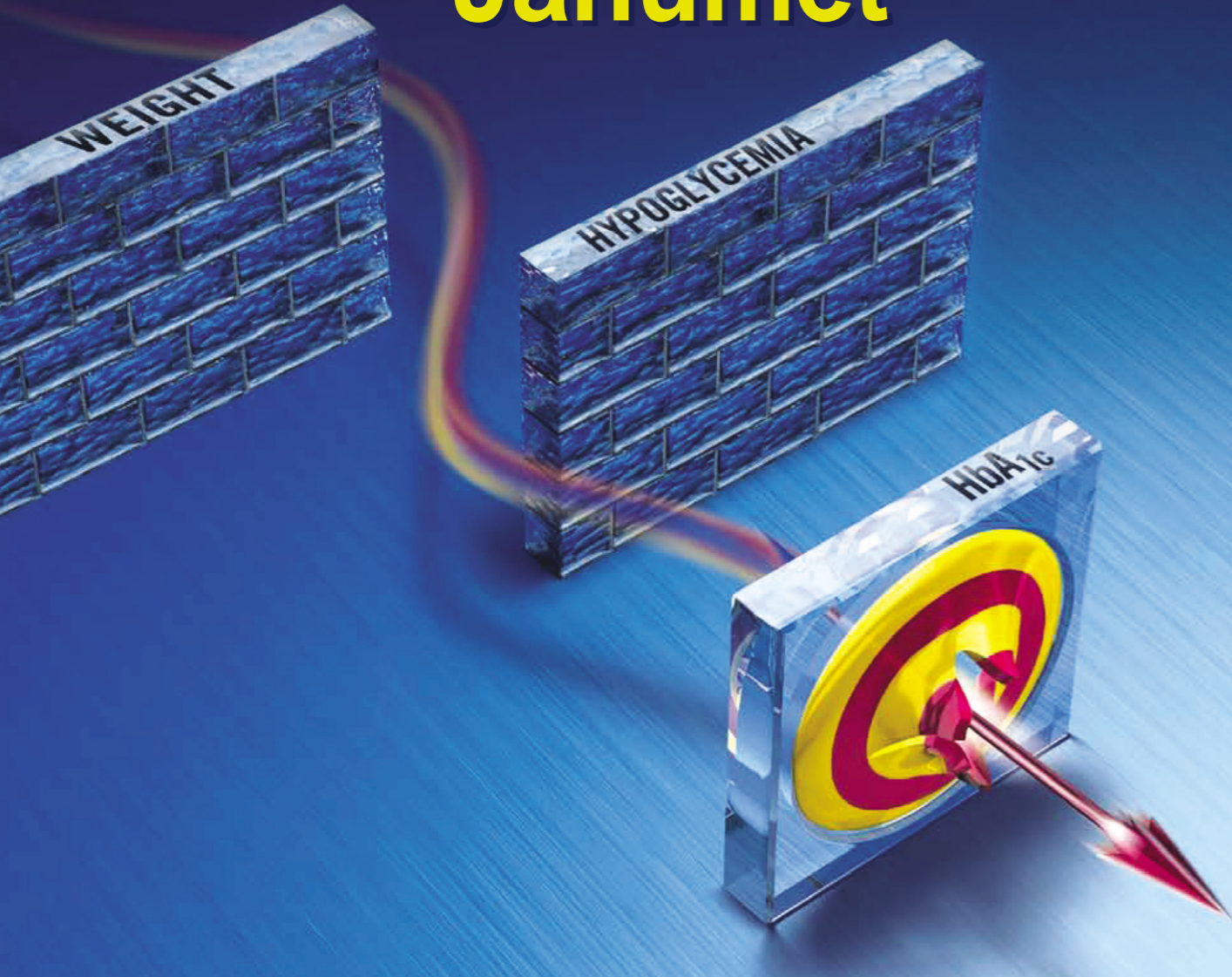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Powerful & Safety Janumet



목표혈당! 자누메트로 도달 가능합니다.

- 최대 2.9%의 HbA1c 강하효과
- 탁월한 식후 혈당 개선효과
- 저혈당 및 체중증가 부작용의 극소화

※ 처방하시기 전에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ew
Janumet
(sitagliptin/metformin)

Changing the course to glucose control.

MSD
한국엠에스디(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미래에셋생명빌딩 11층
TEL: (02) 6363-0114 FAX: (02)6389-0100 <http://www.msd-korea.com>
Copyright©Merck & Co.,Inc.,Whitehouse Station, N.J., USA, 2007. All rights reserved.
10-2008-JAN-2008-KR-3851-EP

대웅제약
www.daewoong.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3-3
TEL: (02) 550-8800
Copyright © 2007 Daewoo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경북의사회보 2009년 여름호(제34호)



11



25

16

- 06 발간사 더불어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듭시다 · 이석균
- 07 축사 더욱 사랑받는 의사회보가 되기를 · 정만진
- 08 축사 회원 단합 위한 큰 힘이 될 것 · 경만호
- 09 스페셜칼럼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중추적 역할 기대 · 김관용
- 10 포토뉴스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의장·회장 이취임식
- 18 회무소식
- 33 2009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안내
- 34 공지사항
- 37 분회 및 병원소식
- 43 회원 문예
시 _ 기도·안길룡 / 차마고도·권세홍
수필 _ 5월과 카네이션·전경홍 / 강물은 흐르는데·이종규
- 49 의학 및 건강칼럼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 그리고 phosphodiesterase-5 (PDE-5) 억제제 · 이경섭
- 52 시사삼행시 및 사행시 입상작

경북의사회보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종영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 김재왕·김종영·문기혁·오춘석·윤태숙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053)941-7785 FAX.(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이메일 cugkma14@hanmail.net
제작처 선진에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053)555-3336 FAX.(053)556-3273

더불어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에게 경상북도의회 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임기동안 회원들의 대변자로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경북의사회 집행부는 의협과 더불어 회원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료현장에서 확인하여 회무와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고, 대신 요구할 것은 끝까지 요구 관철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회원단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협 중앙회에 경상북도 회원들께서 필요한 요구사항과 의견을 충실히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사회를 방문하고 각 지역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회무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발행되는 회보를 통하여 보고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관계와 정계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에도 적극 찾아가서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봉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의료를 실천하는 의사회가 도내 지역민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의료혜택 부재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 순간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긴급의료 봉사반을 구성하고, 지역 의사회 차원의 의료봉사에 대한 지원도 모색하여, 경상북도 도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북의사회가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경상북도의학회의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회지발행을 연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리적 여건으로 의사회의 회무에 무관심과 소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나타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행되는 회보는 경상북도 도민과 의사회, 지역의원과 병원, 각 직역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어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소식 전달과 회원들께서 의료를 실천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경상북도의 도민들에게 더불어 함께하는 경북의사회가 곁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치 없는 비평과 아낌없는 격려가 경북의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장 이 석 균

더욱 사랑받는 의사회보가 되기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3월 경상북도의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정만진(鄭萬鎭)입니다. 금번 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께 큰절하는 심정으로 인사 올립니다.

경상북도 의사회보는 우리 의사회 역사의 기록이자 회원들의 문예지입니다. 소책자의 수준에서 칼라 사진과 다양한 회원 작품과 논문이 실린 200페이지 가까운 자랑스런 회보로 발전하여 지령 33호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이제 34호부터 연간으로 발행하던 회보를 계간으로 바꾸어 좀 더 자주, 좀 더 알찬 회보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의 회보 탄생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와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보를 만드는 것은 쉬우나 사랑받는 회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읽을거리로 수놓인 사랑받는 회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 스스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와 참여,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정성이 합해질 때만이 사랑받는 의사회보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회원 여러분의 관심이 없으면 아까운 종이의 낭비에 불과한 회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계간의 회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회원 여러분, 요즘 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원을 하고 있든, 봉직을 하고 있든,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든 혹은 수련을 받고 있든, 의사로서의 명예와 보람은 사라지고 의무와 규제의 굴레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으니 의사로서 살아갈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더욱 더 안 되고, “된다.”고 자기 최면을 걸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회원님들은 의사로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직군(職群)보다는 그래도 유리하니까 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의사로 살아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면 마음을 열고 현실을 직시하며 마음껏 의사됨을 즐기십시오.

지금같이 평탄하지 않은 의사의 길을 가면서 답답한 일이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계간으로 바뀐 회보에 글을 쓰십시오.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과 분노는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정담과 쓰라림과 에피소드로 경북의사회보를 풍성하게 만듭시다. 우리 다 함께 더욱 더 사랑받는 의사회보를 만들고 사랑합시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철에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보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대의원회 의장 정 만 진

회원 단합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며 큰 힘이 될 것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사회원의 소식지로서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경북의사회보'가 34번째 발간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협을 비롯한 10만 회원들은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료성과 평가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의료기술 수준 또한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상황은 매우 어두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국가단 일보회자제도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과 의사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주 50시간 이상 진료를 해도 의료기관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과 대형병원 선호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어 지방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의료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의 틀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선진화가 의료의 틀을 깨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의협 36대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 선진화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선진화를 통해 현재의 의료환경을 바꾸고, 국가통제 의료체계를 변화시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10만 회원들이 신뢰로 뭉쳐서 저와 저희 36대 집행부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셔야합니다.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회적 위상을 정당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어떤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북의사회보'와 같은 소식지는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여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 36대 집행부는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의 틀을 바꾸는 데 만전을 기해 오로지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의협을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북의사회보'와 같은 알찬 소식지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경 만 호**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34호 『경북의사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간존중의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가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또 사랑의 인술을 통한 빛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자리해 오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경북의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TBC 무료개안수술, 웰빙봉사단 무료진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다문화가정 돕기 등 봉사의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의학발전과 자기계발을 위한 춘계 학술대회, 경북의학계 등 학술활동뿐만 아니라, 독도경비대 구급의약품 전달,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서명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전의 틀을 구체화하면서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그린 에너지에 집중하고, 낙동강은 물길도 살리면서 소득도 흐르는 강으로, 백두대간은 산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경부선을 따라 첨단산업의 축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새마을운동으로서 '산업의 녹색화'와 '의식의 녹색화'를 주창하고,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마을의 불길을 점화했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사회 회원 여러분!
지금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모든 분야에서 참 어려운 시

기입니다. 의료계도 만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환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도민 의료뿐만 아니라 위기극복의 현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했듯이, 지금 고통스럽고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도 빛이 오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지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민 의료뿐만 아니라 위기극복의 현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했듯이, 지금 고통스럽고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도 빛이 오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0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경북의학제·친선의 밤

2009
춘계종합학술대회



경북의학제

- 1 춘계종합학술대회 강의
- 2 이석균 회장 개회인사
- 3 진지한 회원들
- 4 학술대회에 등록 중
- 5 제약회사 부스
- 6 의사회 날 축하 화환



- 1 경북의학제 행사 전 다함께 국민체조
- 2 선수선서 증인 서형덕(경산) 회원
- 3 경북의사회 임원진
- 4 단상의 주요내빈들
- 5 골프피칭
- 6 족구 경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는 서부·남부팀





- 1 응원중인 남부팀
- 2 시사 삼행시 장원 신명준외과의원 가족 (이영희)
- 3 시사 삼행시 차상 신영주내과의원 가족 (이미숙), 최인환의원 가족(김태숙)
- 4 종합 우승을 차지한 동부지구(김광만 포항회장)





1



1



2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2



3

- 1 이동규(울진)회원의 색소폰 연주
- 2 이원석(칠곡) 회원의 색소폰 연주
- 3 이동규(울진) 회원 자녀의 뽀리댄스
- 4 양승홍(안동) 회원의 기타 연주
- 5 남동수·신명준(포항) 회원의 성악
- 6 김광만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3



4



5



6



7

- 1 이홍우·임지훈(경주) 회원의 기타 연주
- 2 김동주(구미) 회원의 아코디언 연주
- 3 김성규(심평원 대구지원장) 부부의 스포츠 댄스
- 4 도은정(경산) 회원의 노래
- 5 백현우(영주) 회원의 색소폰 연주
- 6 사회를 보는 박일영 기획이사
- 7 심사 중인 심사위원들
- 8 대상을 차지한 도은정 회원에게 상품 수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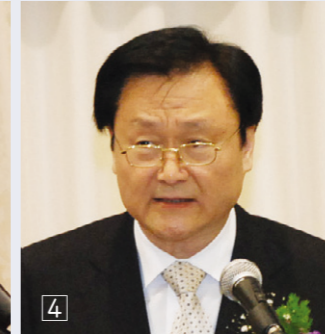
6



8



이석균 회장에게 회기를 이양 중인 이원기 직전회장



- 1 제40대 전임 집행부 감사 인사
- 2 새로 선출된 이석균 회장에게 꽃다발 증정
- 3 이원기 직전회장의 인사
- 4 이석균 의장(현 회장)의 개회사
- 5 정만진 신임 의장
- 6 최유근 선거관리위원장의 경과보고

- 7 전형위원회 모습
- 8 의협회장 치사를 대독중인 변영우 전 의협부의장
- 9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축사
- 10 회원표창 중인 이원기 전 회장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의장·회장 이취임식



제14대 신임 의장단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서 회장·의장 추대

지난 3월 28일 호텔제이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4억원의 새해예산과 부서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제41대 회장에 이석균 회원을, 제14대 의장에 정만진 회원을 추대하였다.



제41대 신임 집행부 인사

본회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오후 6시 대구 호텔 제이스에서 개최하고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4억원의 새해예산과 부서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제41대 회장에 이석균 회원을, 제14대 의장에 정만진 회원을 추대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 및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본회 이병재·신은식·변영우 고문과 최유근 선거관리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성규 대구지원장 등 내빈 다수와 대의원 68명(재적 81명)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석균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우리 의료계도 수입감소와 지출증대로 말 못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보험재정은 수진율 감소로 인해 2조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했다니 의료계의 어려움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새로이 당선되신 정만호 의협회장과 더불어 회원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정책이 있다면 의료계도 과감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대신 요구할 것은 끝까지 요구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고, 회원들은 협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대의원총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지역회원

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대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짧은 시간이지만 궁금증이나 경북의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의료계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마저 위협받고 잘못된 법령과 정책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삼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선거로 당선된 새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하여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계를 살리자”라고 하였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한형원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남일(포항)·전우성(구미)·박무영(안동) 대의원을 보조위원으로 선정하고 대의원 81명중 68명이 참석하여 회의성립을 선언하고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과 감사보고는 이의없이 박수로써 통과시켰으며, 2008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 보고와 일반회계 및 적립금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2009년도 사업계획(안)과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에서는 작년보다 5백만원 증액된 4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의협 총회 상정안건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 △건강보험심사 개선 △전회원 토요일 휴무제 도입 △의협회장 선

출 방법 개선 △보건소장에 의사 임용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협 공제회 및 배상공제 가입 △전자차트 등 수입사업 개발 △지역별 의료정책 연구위원회 신설 등 9개항을 채택하여 건의키로 하였다.

정기총회 이후 진행된 의장 및 회장선거에서 신은식 임시의장의 진행으로 최유근 선거관리위원장의 경과 설명 및 입후보자 안내가 있은후 의장에 단독출마 한 정만진 회원과 회장에 출마한 이석균 회원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부의장(2), 부회장(5), 감사(3), 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상임이사진을 구성하여 인준하는 등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상자 명단

- △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 최을임(포항), 장유석(경산)
- △ 대외시상 : 이경호(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유승현(의협 회무지원국), 김영성(의협 공제회), 하정수(메디칼업저버 기자)
- △ 대내시상 : 황영순(포항 선린병원), 권영주(안동병원)
- △ 유공회원 : 박찬정(포항), 이홍우(경주), 김대영(안동), 전우성(구미), 권오양(영천), 최경태(경산)
- △ 모범위원 : 이덕영(경산)
- △ 모범분회 : 포항시의사회
- △ 사무직원 : 박재영(경상북도 의사회), 윤진영(안동시의사회)

경북의사회 의장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경상북도 의사회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후 제14대 의장 및 제4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제14대 정만진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의사회 최고 의결기구이며, 집행부를 격려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여 잘못 판단할 경우에는 적절한 견제를 가하여 바른길을 갈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였으며, “대의원회 의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제40대 이원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경상북도 의사회와 동료의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온갖 수고와 희생을 하여 주신 여러 부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님들과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주신 사무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이 선출되신 이석균 회장님과 정만진 의장님께 축하를 보낸다”라고 하였다.

또한 “능력이 부족한 제가 회직을 수행하는 동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봉사를 한다고는 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사 여러분들의 기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이 가장 제 가슴을 쓰라리게 하며, 서울에서 회의가 끝나면 포항행 심야버스를 타고 새벽 서너 시가 되어 도착하여 귀

가를 하였던 일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다"며 지난날을 회고하며 이임사를 대신하였다. 이어 이원기 회장은 이석균 신임 회장에게 축하 꽃다발과 더불어 의사회기 이양이 있었다.

제41대 이석균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경북의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사회로 이끌어 주신 전직 회장님들의 지도력을 거울삼아 지금까지 연마한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1%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일선 진료에 임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 지역을 순회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사회원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와 봉사활동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항상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추진 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향후 3년간 회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상임이사진 소개가 있은후 이취임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석균 회장(제41대) 프로필

이석균 신임회장은 경북고등학교(1969년), 경북의대(1976년)를 졸업후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7년 청십자의원을 개원한 후 경산시의사회장(1996),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2000), 대의원회 의장(2006)등 역임. 또한, 의료계 밖에서도 국제로타리 3700지구 경산로타리클럽 회장과 3700지구 총재보좌관, 경북의대 44회 동기회장, 경북고등학교 50회 동기회장, 대구지방식약청 마약자문위원, 경상북도 의료급여 심사위원, 경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청강장학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경북대학교 제1회 선행상(1972. 4)을 수상.

정만진 의장(제14대) 프로필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경북의대(1977년)를 졸업하였으며, 1987년 정만진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원한 후 영천시의사회장(1998), 경상북도의사회 기획이사(2000), 부회장(2003), 감사(2006), 대한의사협회 이라크 의료봉사단장(2003), 울릉군보건의료원장(2004)등을 역임. 또한, '수필과 비평' 신인상 수상으로 수필가로 등단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지난 제36회 보건의 날에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상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세입총액 ₩431,640,813원 (자 : 2008. 4. 1)
 세출총액 ₩431,640,813원 (지 : 2009. 3. 31)

■ 총괄표 (단위 : 원)

과목	세입	부	증△감
회비	310,010,000	332,190,000	△22,180,000
기타수입	22,744,839	37,205,652	△14,460,813
이월금	62,245,161	62,245,161	
합계	395,000,000	431,640,813	△36,640,813

과목	세출	부	증△감
사업비	116,000,000	115,172,761	827,239
회의비	16,000,000	15,486,700	513,300
판공비	26,000,000	26,000,000	
경조비	18,000,000	16,820,000	1,180,000
활동비	41,000,000	38,990,000	2,010,000
사무비	107,580,000	107,393,150	186,850
적립금	19,000,000	19,000,000	
수용비	31,500,000	24,639,830	6,860,170
예비비	19,920,000	10,650,489	9,269,511
이월금		57,487,883	△57,487,883
합계	395,000,000	431,640,813	△36,640,813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세입총액 ₩400,000,000원 (자 : 2009. 4. 1)
 세출총액 ₩400,000,000원 (지 : 2010. 3. 31)

■ 총괄표 (단위 : 원)

과목	2009 예산액	2008 예산액	증△감
회비	313,330,000	310,010,000	△3,320,000
기타수입	29,182,117	22,744,839	△6,437,278
이월금	57,487,883	62,245,161	▽4,757,278
합계	400,000,000	395,000,000	△5,000,000

과목	2009 예산액	2008 예산액	증△감
사업비	119,000,000	116,000,000	△3,000,000
회의비	16,000,000	16,000,000	
판공비	26,000,000	26,000,000	
경조비	15,000,000	18,000,000	▽3,000,000
활동비	41,000,000	41,000,000	
사무비	109,320,000	107,580,000	△1,740,000
적립금	19,000,000	19,000,000	
수용비	30,500,000	31,500,000	▽1,000,000
예비비	24,180,000	19,920,000	△4,260,000
합계	400,000,000	395,000,000	△5,000,000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임원



이석균 회장
(청십자의의원)



김재왕 부회장
(김재왕내과의원)



김광만 부회장
(지곡그린의원)



이경수 부회장
(이경수내과의원)



조현숙 부회장
(계림내과의원)



이경섭 부회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한형원 기획이사
(한형원내과의원)



박일영 기획이사
(경산산부인과의원)



이동석 학술이사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장유석 재무이사
(정유석외과의원)



최경태 법제이사
(현대내과의원)



신명준 보험이사
(신명준외과의원)



박종완 보험이사
(경산정형외과연합의원)



이정기 의무이사
(삼성연합여성의원)



김종영 공보이사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하달봉 정보이사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손성락 정책이사
(손성락산부인과의원)



서보균 정책이사
(포항교도소부속의원)



이태규 정책이사
(왜관정형외과의원)



김철기 정책이사
(김철기소아청소년과의원)



백현우 정책이사
(백현우외과의원)



천종록 정책이사
(경상병원)



박대홍 정책이사
(삼성안과의원)



박경욱 감사
(박경욱내과의원)



천중욱 감사
(천내과의원)



서영진 감사
(상쾌한향구병원)



정만진 의장
(전.울릉군보건의료원)



오세진 부의장
(오세진비뇨기과의원)



정능수 부의장
(동산연합의원)

대의원회 의장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새로이 구성된 의협 집행부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둘째날에는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 종괴의 접근 및 치료’에 대해 순천향의대 외과 손두민 교수등 4편의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2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연수교육 12평점이 주어졌다.

춘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자

5월 23일(토)

△섬유근통 증후군 진단 및 관리 - 김성호(동국대 내과) △치매의 진단과 관리 - 박미영(영남의대 신경과) △영화보고 떠나는 세계여행 이야기 - 전봉진(동국대 경주박물관장) △소화관 운동질환 및

가능성 소화기질환 - 박경식(계명의대 내과)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 - 배경숙(심평원대구지원) △의료현안 - 나현(대한의사협회 부회장)

5월 24일(일)

△혈압과의 전쟁, 이렇게 시작하자 - 시청각(비디오)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 종

괴의 접근 및 치료 - 손두민(순천향의대 외과) △팔꿈치 초음파 - 서경진(동국의대 영상의학과) △외래에서 흔히 보는 이비인후과 질환 - 신승현(대구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진료일선에서 혈관종의 감별진단 - 이석중(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피부과) △성인병의 주범, 콜레스테롤 - 시청각(비디오)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신지식을 배우는 ‘춘계학술대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경북의학제’ 등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5월 23일, 24일 양일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했다.

200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경상북도 의사회는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생애교육차원의 보수교육을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춘계종합학술대회는 이석균 회장의 개회인사와 더불어 학술연제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맞아 먼길을 달려오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춘계학

술대회는 개원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제로 구성하여 준비하였으며, 또한 의사의 날 행사를 통해 경북도내 전체 회원들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첫날 학술강연에는 이동석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섬유근통 증후군 진단 및 관리’에 대해 김성호 동국대의대 내과 교수 등 2편의 학술연제와 ‘영화보고 떠나는 세계여행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봉진 동국대학교 경주박물관장의 발표와 심평원대구지원 배경숙 차장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의협 경만호 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나현 부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경북

친선의 밤 행사서 도은정회원(경산) 대상 수상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만찬과 더불어 그동안 회원들의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인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5월 23일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박일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10팀이 경연을 벌인 결과 도은정회원(경산, 도은정소아청소년과의원)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석균 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이병채·신은식·최종두 고문과 김성규 심평원대구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이 색소폰 연주, 밸리댄스, 성악, 기타연주 등의 장기자랑으로 선보여 바쁜 의업중에서도 갈고 닦은 숨은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김광만 심사위원장은 “회원들의 취미활동으로 갈고닦은 실력은 회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발전하여 어느 무대에 선보여도 손색없는 솜씨다.”라고 하였다.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서 가장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은 가수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부른 도은정 회원(경산)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으며, 가수 탁발승의 ‘새벽노래’에 기타연주를 한 양승홍 회원(안동)이 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모든 참가한 회원들이 흥을 돋우는 자리를 마련하여 큰 박수의 갈채를 받았다.

특히 김성규 심평원대구지원장 부부가 스포츠댄스를 선보여 특별상을 받아 한층 더 빛나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황리에 친선의 밤 행사를 마쳤다.

| 장기자랑 시상내역 |

대 상 : 도은정(경산, 도은정소아청소년과의원) - 노래 우수상 : 양승홍(안동, 우리여성의원) - 기타연주&노래

장려상 : 이동규(울진, 이동규산부인과의원) - 색소폰연주
 이현아·민아(울진, 이동규 회원 자녀) - 댄스
 이원석&사모님(칠곡,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 색소폰과 피아노연주
 백현우(영주, 백현우외과의원) - 색소폰연주

남동수·신명준(포항, 남동수신경외과, 신명준
 외과의원) - 성악
 이홍우·임지훈(경주, 서울내과의원) - 기타연주
 김동주(구미, 효장수요양병원) - 아코디언 연주
 특별상 : 김성규 부부(심평원대구지원장) - 스포츠댄스



복권 대상을 차지한 박무영(안동) 회원

경북의학제서 동부지구 우승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북의학제는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5월 24일 오후 1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형원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경북의학제 행사에 앞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모든 회원들과 가족들은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 애도의 뜻을 함께했다.

야외경기로 펼쳐진 경북의학제 행사에는 이석균 회장을 비롯하여 신은식·이원기·최종두·변영우 고문등 4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경북의학제에서 참석한 전 회원들과 가족들은 OX퀴즈를 시작으로 단체경기인 바둑, 족구, 윷놀이(남성·여성), 탁구, 2인 3각, 골프피칭과 번외경기로 팬티릴레이, 어린이 경기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바둑, 윷놀이(남성팀)에서 우승한 동부지구가 289점으로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남부지구, 3위 서부지구, 4위 북

부지구가 차지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행시에는 '황산별'과 '오월축제'를 시제로 진행되어 60여편의 출품작 중에서 이영희(포항, 신명준외과의원 회원 가족)씨가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다.

로봇청소기, 자전거, 선풍기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는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종합점수표

경기종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바둑	50	30	20	40	
족구	20	40	50	30	
2인 3각 릴레이	40	20	50	30	
골프피칭	40	50	20	30	
윷놀이	남성팀	50	40	30	20
	여성팀	40	30	50	20
탁구	40	30	20	50	
OX퀴즈	9	3	24	3	
종합점수	289	243	264	223	

- 종합우승 : 동부지구 ■ 준우승 : 남부지구
- 3위 : 서부지구 ■ 4위 : 북부지구



경북의사회

2009년도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회원들의 단합과 의사회의 발전 모색 위해 워크숍 주제 '지역의사회 발전'에 포커스
 신임 집행부 경주 남산의 유적지 탐방으로 우의 다지는 시간도 가져

본회에서는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의료계의 건실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을 7월 4일부터 7월 5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의협 경만호 회장과 조남현 정책이사, 집행부 임원 및 의장단·감사단, 각 시군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단합과 의사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워크숍 주제도 지역의사회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의협 경만호 협회장도 "영광스러운 워크숍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기쁘고 집행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의료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약제



비 환수법 통과 저지에 모든 회원들이 동참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워크숍 주제발표로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료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 의료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정부에서 도입 예정인 u-Health 산업의 보편화로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병의 증가로 u-Health 산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넓혀가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제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명준 본회 보험이사의 '의료인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의료정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정치권, 학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치후원금 활성화와 지역 정치인과의 유대 강화,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 확대 등을 꼽았다.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주제발표



조 남 현의협 정책이사 신 명 준 보험이사 장 유 석 경산회장 박 일 영 기획이사

장유석 경산시의사회장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사회원 스스로 긍정적 사고와 능동적 의사회 참여가 필요하며, 의사회 임원들의 책임감으로 임무 수행, 회원들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 지역의사회의 모임 기회 제공,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박일영 본회 기획이사는 의료봉사단 구성계획으로 재난·재해 및 의료봉사등을 위한 지역의사회의 의료봉사단 구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튿날에는 경주 남산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코스로 삼릉을 출발해 상선암, 전망대를 올라 석불입상을 둘러보고 우의들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의협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지난 4월 2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63시티에서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거에서 박희두 대의원회 의장 후보가 제26대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본회 직전회장을 역임한 이원기 대의원을 비롯한 박광수·홍승원·김동익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감사에는 허정·이원보·김국기·김주필 대의원과 부회장에는 신원형(상근부회장)·나현·윤창겸·이윤성·장성구·신민석·박경아 회원을 선출하였으며, 하권의 중앙대의료원장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은 지난해(285억 2000만원) 보다 9.22%(26억 2824만원) 증액된 311억 4824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의협 회장 직선제 선거방식이 직선제에서 민주적 간접선거 방식(선거인단 간선제)으로 채택하였으며,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여파 가운데 의료계 민주화의 바람 속에 2001년 탄생했던 직선제가 8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으며, 본회와 대한의학회는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안을 제안한 가운데 통과되었으며, 대의원회는 선거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선거인단 구성비율과 선거인단 수에 대한 세부적인 선거방식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키로 하였다.

대의원회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성명서를 통해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해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을 극명히 드러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는 등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의협 제36대 경만호 협회장 취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협회장은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제36대 경만호 협회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취임식 및 축하연은 경만호 협회장의 취임선서, 취임사, 주요 내빈들의 축사, 축하케이크 절단식 및 기념촬영, 그리고 의사회 및 의과대학 학생 동아리 축하공연과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의협은 취임식 자리에 의협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체장애인시설 '은평의 마을'과 한센인 모임 '한빛복지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의협이 될 것을 약속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축하화환을 받는 대신 '사랑의 쌀'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에 이원기 직전회장 선출



지난 4월 26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부의장에 본회 이원기 직전회장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2009년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원기 의협 부의장(포항, 이원기 외과의원)은 1970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0년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 포항시의사회장(2000~04),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2000~06), 경북의사회장(2006~09)을 역임하였으며, 경주·포항지역 천주교 평신도 대표, 한국치매가족협회 포항지부장, 푸른포항21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대구·경북의사회 중앙대의원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4월 26일 개최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대구·경북의사회는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

대구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중앙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회 이석균 회장과 중앙대의원 6명, 대구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을 비롯한 중앙대의원 14명 등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참석대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대구·경북 회장의 인사에 이어 의협 시도사회장회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법정관분과와 사업 및 예결산 분과, 제1토의분과, 제2토의분과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의협 임원 개선(의장, 부회장, 부의장, 감사)에 대해 의견을 상호 개진하였다.

본회 회장·의장, 취임인사차 경북지사 및 유관기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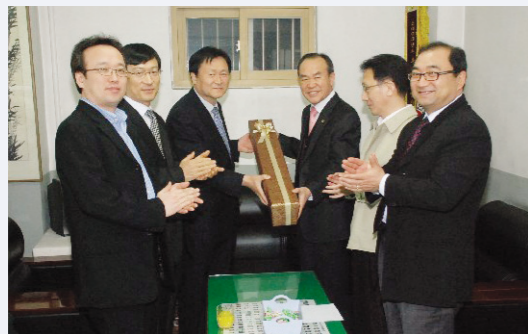
본회 이석균 회장과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4월 2일

신구 집행부 회무인수인계

지난 4월 1일 오후 7시 30분 본회 사무처에서 신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와 경리 일체에 대한 인수인계와 임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41대 이석균 회장과 박일영 기획이사, 장유석 재무이사와 제40대 이원기 회장과 한형원 기획이사, 서영진 재무이사, 서보균 의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본회 박재영 사무처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무인수인계에서 이석균 회장은 전임 이원기 회장을 위시한 임원진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임 집행부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회원들의단합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제41대 회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신임인사차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의회 등 유관기관, 언론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이석균 회장은 지난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준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의료현안을 전하고, 앞으로 경상북도의사회와 유관단체간의 상호 원활한 업무 협조를 구하였다.

유관기관 및 언론사

기관명	일정	기관명	일정
경상북도지사	4. 2(목)	매일신문	4. 2(목)
경상북도의회 의장	4. 2(목)	영남일보	4. 2(목)
경북지방경찰청장	4. 2(목)	TBC대구방송	4. 8(수)
심평원대구지원장	4. 2(목)	KBS대구총국	4. 10(금)
건강보험공단대구지역본부	4. 13(월)	MBC대구방송	4. 14(화)
대구지방국세청장	4. 14(화)		

대구지역 대학 및 종합병원

기관명	일정
경북대학교병원장, 의전원장	4. 8(수)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장, 병원장, 의대학장	4. 10(금)
영남대의료원장, 병원장, 의대학장	4. 13(월)
대구가톨릭의료원 병원장, 의대학장	4. 13(월)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4. 14(화)

제37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경북을 열어갑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4월 7일 오후 2시 경상북도 김영일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 도내 기관장 및 도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제37회 보건의 날 및 제9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본회 이석균 회장은 도내 41개 보건기관·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해 최근 범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도

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경북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이 있었다.

보건의료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본회 이경수(구미), 한형원(포항), 김영



권(김천) 회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중앙정부 보건

의 날 기념식에서 본회 이원기(포항) 전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6.25참전 전몰학우 추념비 참배

현충일을 맞아 6월 5일 오전 10시 경북의전 교정에 있는 6·25참전 전몰학우 추념비를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 날 참배에는 이석균 본회 회장과 변영우 경북의대 동창회장(본회 고문),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 정성광 경북의전 학장, 박진홍 6.25참전 53추추회 회원, 학생대표 등이

참석하여 헌화 및 분양, 추도사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경북의전 전몰학우 추념비는 6·25 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10명을 기리기 위하여 53 추추회(경북의전 1953년 춘추졸업동기회)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잊지 못할 학우들을 기리는 뜻을 모아 추모의 정을 새기기 위하여 1980년 4월 23일 건립되었다.



2009년 재난안전네트워크 민관합동 컨퍼런스 개최

재난없는 안전 경북 실현을 위한 2009년도 재난안전네트워크 민관합동 컨퍼런스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경주 대명콘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컨퍼런스는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공원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정회원 단체 및 시군 단체 관계자, 경상북도 및 시군 안전문화업무 담당자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 유공자(우수 공무원) 포상 등 개최식에 이어 동국의대 가정의학과 정취수

하였다.

또한 4월 16일 ‘메디시티 대구 선포식’과 4월 19일 대구스타디움 수변광장에서 침복유치기원 시·도민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대구·경북 의료 인프라의 우수성과 침복유치 타당성을 적극 알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서 결의문 채택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이 7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4월 13일 오전 11시 인터볼고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등 정·관계,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과정과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판 힘모으기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유치위원회는 “대구·경북의 대학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통해 500만 시·도민의 여망대로 침복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침복을 유치해 대구·경북을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다짐





교수의 '현대질병과 안전한 여름나기'를 주제로 한 교양 강좌와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성기환 교수의 '선진안전문화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이어 김관용 지사로부터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또한 이튿날인 10일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재난대응 체험교육으로 안전사고예방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된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는 본회를 비롯한 간호사회, 새마을회,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등 11개 정회원 단체와 경상북도, 선린대학, 김천대학 등 6개의 협력회원 단체로

지난 2006년 11월 창립되어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효율적인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뜻을 하나로 모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지난 6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엄신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운동본부 공동의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과 의협 신원형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에서 유래없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입양 가정, 맞벌이 부

부 등과의 대화와 종교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총 40개 기관과 단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야별 행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향후에는 16개 시도별로 릴레이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여단체별로 특화된 출산장려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저출산 극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 임직원 및 시도의사회 직원 워크숍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2009년도 대한의사협회 임직원 및 시도의사회 워크숍이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의협의 주요회무보고와 의료계의 나아갈 길에 대해 송우철 총무이사과 조남현 정책이사, 박찬대 정보통신이사의 전반적인 강의와 더불어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의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이튿날에는 체력단련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실시

2009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지난 6월 13일 오후 5시부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3층 마뎀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대구시 서정길 자원순환과장의 '폐기물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질의 및 응답) 강의에 이어 대구지방환경청 강석재 과장의 '폐기물관리실무(RFID 기반의료폐기물관리 시스템) 및 질의 및 응답', '저탄소·녹색 성장 교육(비디오 시청)등의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본회 고문단 위촉 및 간담회

지난 5월 11일 오후 7시 30분 사랑채한정식당에서 본회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하여 이병재·신은식·변영우·이원기 고문과 정만진 의장, 박일영 기획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이석균 회장은 참석하신 고문들께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어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훌륭하신 역대 회장님과 의장님을 고문으로 모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박일영 기획이사로부터 본회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보고, 회장 및 의장 취임식 개최 보고, 의협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보고, 의협 제36대 집행부 출범 보고와 함께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행사에 대한 간략한 회무보고가 있었다.

또한 최근 중앙 의협의 의료현안과 더불어 본회 제41대



집행부의 회무방침에 대한 조언과 격의없는 대화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고문단 명단

구분	성명	역대	역임연도	지역	의료기관명
역대 회장	이병재	제35대	1991~1994	포항	고려병원
	신은식	제36~37대	1994~2000	포항	신정형외과의원
	변영우	제38~39대	2000~2006	경주	전. 선린의원
역대 의장	이원기	제40대	2006~2009	포항	이원기외과의원
	남주현	제8대	1991~1994	안동	남주현의원
	최중두	제10대	1997~2000	안동	최정형외과의원

회/원/등/정

장기호 회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에 피선



지난 5월 1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 정기총회에서 장기호 회원(사랑애의원, 경산)이 지회장에 피선되었다.

장기호 지회장은 경산시의사회장, 경상북도 의사회 정책이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 부회장등을 역임하였으며, 임기는 2009년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이진홍 회원 도지사 표창 수상



울진군의사회 이진홍 총무이사(하나로내과의원)는 지난 5월 12일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에 기여한 공으로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의료배상공제 | 의료사고분쟁의 해결책!

분쟁조정, 합의, 보상의 모든 것
| 가입문의 | 대구·경북주재사무소 : 053) 941-7102
공제회본부(의협) : 02) 794-2480, 6587

이동규 회원 '전국노래자랑' 서 인기상

울진군의사회 이동규 회원(이동규산부인과의원)은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전국노래자랑'에 두 딸과 출연하여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오는 8월 2일 방영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 참석

지난 6월 20일 오후 4시부터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2차 평의원회에 본회에서는 이정기 의무이사과 황석순 회원(포항)이 참석하였다.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신입회장에는 김일중 개원내과의사회장이 추대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은 1억 3,023만원으로 책정하고 △건강보험제도개선, △1차 의료기관 운영활성화, △외국인 환자 진료 및 u-health 등 의료산업화 대책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의협 정보통신위원회의 참석

지난 6월 20일 오후 7시 서울 만복관에서 열린 정보통신위원회에는 본회 하달봉 정보이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U-Health 제도 관련 현황, 의료산업 정책개발위원회 및 산하 의료산업화정책단·의료서비스 선진화사업단 구성 보고, 각시도의사회 정보통신 관련 사업 진행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토의사항으로는 청구 S/W(전자차트) 개발 사업과 KMA System (MRO)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협 보험위원회의 참석

지난 7월 4일 오후 5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의협 보험위원회에 본회에서는 박종완 보험이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과 차등수가제도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의사의 의료행위 가능여부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행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요양급여 적용 유무에 대한 판단 형식으로 개선하는 것에 공감대 형성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문들의 삭제 문제는 별도로 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의협 및 유관기관 위원 추천

위 원 회 명	위원명	직 책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박일영	기획이사
의협 건강검진개선위원회	장유석	재무이사
의협 법제위원회	최경태	법제이사
의협 의료산업정책개발위원회	신명준	보험이사
심평원대구지원 자율개선운영자문단	서보균	정책이사
식약청 마약류명예지도원	서보균	정책이사

'능소화 붉은 집' 시집 발간 안동병원 권세홍 과장



본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안동병원 영상의학과 권세홍 과장이 지난 6월 30일 '능소화 붉은 집'의 시집을 발간했다. 시집에는 '무릉 풍경', '능소화 붉은 집' 등 53편이 실려있다.

송재학 시인은 "권세홍은 밝은 세계관에 속하는 시인이다. 이 세계관의 심리는 시, 또는 생을 필사적으로 온 몸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 좌고우면 하는 대신 단순하고 밝은 긍정의 힘을 사물에서 찾아낸다."고 평하고 있다.

권세홍 회원은 1989년 「시와 의식」으로 등단하였고, <수화>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 납부 안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회원정기신고는 의료법 제28조제3항 및 의협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 제2,3,4항에 의거 회원의 지역분포 및 취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사인력수급계획과 의사회 회무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

께하는 이미지를 고양하는 한편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사오니 2009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가 기한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도내거주회원)

나. 신고기간 : 2008년 6월 15일(월) ~ 7월 31일(금)

다. 입금계좌 : 농협 301-0012-0507-61 경북의사회

라.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정관세칙 제5조)

(1) 회비 면제회원

- 만 70세이상 회원(1939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의협 및 특별회비·분담금(단, 경북도의사회비는 '가회원' 250,000원, '나회원' 125,000원 납부)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보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 전업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2) 회비 감면회원

1) 개원회원('가' 회원)중 '나' 회원회비 적용대상

: 492,000원 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39년 5월 1일~1944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마. 회원기록부 신고방법

- 회원기록부에 인적사항 누락 또는 변경사항을 정확히 수정 기재 후 날인
- 전산입력된 기록부가 없는 회원은 공란(백지)용지에 상세히 기록 날인
- 회원 개인 신상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웹방식 신고
- 대한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접속 →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변경내용 수정

구 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휴직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30,000	242,000	242,000	137,000	10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회비·학술대회분담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계	580,000	492,000	367,000	212,000	105,000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안내

- 심평원에서는 법정전염병의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유도하고 법정전염병 통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법정전염병 질병코드에 대한 안내사항 시달
• 심평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서비스 → 정보마당 → 급여기준정보 → EDI를 통해 확인

수진자에 대한 본인 확인 협조 요청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접수시 간단히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토록 안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 수수료 조정 안내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요청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조정안' 승인 요청에 대해 안내
• 시행일자 : 2009. 4. 1 신청분 부터 적용
• 서류검사 중 인력 및 시설 검사 수수료 적용 : 현재 개정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시행시 부터 적용

학생건강검사 가이드라인 안내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존의 일반성인 검진결과 판정 기준에 준용하던 학생건강검진결과 처리방법에 대해 정책연구(연구기관:대한소아과학회)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 처리 기준(안)'을 개발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건강검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동 사항이 2009년 학교건강검사에 적용됨을 안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인수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정신과 의료급여 의료기관등급 산정관련 안내

-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후 진료기록 일체에 대하여 인계 · 인수가 이루어진 후 동일장소에 정신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 개설기관에 적용하는 의료급여정신과 기관등급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의료기관의 등급을 적용함을 안내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 관련 유권해석 안내

-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당해 의료기관을 다른 의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진료기록부등 또한 보관계획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을 양수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음을 안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 측정기관 신규지정 안내

-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피폭 선량계를 측정하는 측정기관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확보 및 성능관리를 위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09년도 검사 · 측정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 등 현재 지정된 검사 · 측정기관을 안내

2중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관련 의료급여 법시행령 개정안내

- 본인부담상한선 인하 : 현행 6개월 120만원 → 60만원(2009년 1월 소급적용)

- 입원본인부담율 인하 : 현행 15% → 10% (2009년 6월 1일 시행)
※ 외래본인부담율 : 15% 전과 동일

'의료용 장갑' 재사용 금지 등 협조 요청

- 복지부가 식약청에서 탈크의 유통경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탈크를 사용하여 '의료용 장갑'을 멸균 재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의료용 장갑 등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일회용 제품류는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세탁금지 세탁물로 되어 있어, 재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의료기관의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안내

-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아니한 수액병(팩), 약병, 앰플병, 바이알병, 석고붕대 등은 용기내의 내용물을 비운상태에서 공병, 깨진병, 플라스틱 등으로 구분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

장애인 등록 절차 개선 안내

- 1) 기존 : 장애인 등록신청(동사무소) → 의료기관 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진단서 제출 및 장애인 등록(사무소)
2) 개선 : 의료기관 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서 제출(동사무소)
※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시에 사진부착 및 간인등의 처리 협조

동일날 동일환자에게 2회 이상 처방전 발행시 주의사항 안내

- 동일날 동일환자에게 2회 이상 처방전 발행시(단순 재발행의 경우는 제외) 부득이하게 중복처방된 약제의 경우에는 처방전 상에 구분표시(예:중복약제에 대해 '삭제' 표시 또는 '동일날 기처방된 약제로 조제시 제외' 표시 등) 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시어 동일 약제가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

병사용 진단서 발급시 신체등위 판정기준 관련 발언 자제 협조요청

- 최근 병력의무자에 대해 병사용진단서 발급과정 등에서 병무청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대한 발언으로 신체등위 판정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병무청으로부터 동 사안에 대한 발언 자제 요청 및 병사용 진단서 발급 시 본인여부 확인철저 등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진료 및 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범 세계적 유행에 대비하여 신속한 환자 관리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발열환자의 분리 진료 또는 감시가 필요하여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관리 방안을 송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 관련 안내

-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의 심사결정에 명백한 심사오류가 확인되는 즉시 자체적으로 바로잡아 환급조치하는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 운영
• 아울러, 동 자체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명백한 착오를 확인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시정을 요청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처리되는 편리한 서비스 안내

출산 전 진료비 고운맘 카드 관련 협조사항 안내

-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내원한 임신부에게 고운맘 카드 사용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고운맘 카드 사용안내와 관련된 사항 안내

진단서 발급 철저 및 유의사항 통보

- 각종 진단서(건강, 사망, 상해, 출산, 사산증명서 등) 작성은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본회가 마련한 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 부양의무자들이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확인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진단서 발급 요청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진단서 기재 시 의사의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고, '근로활동 불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2009년도 환자조사」 자료작성 및 제출 협조 요청 안내

• 복지부에서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국민의 질병·상해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요구통계 생산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9년도 환자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 안내

2D 바코드 처방전 사업 중단 안내

• 의협에서는 「2D 바코드 처방전 사업 TF」를 구성하여 지난 6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2D 바코드 처방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 사업은 처방전 발행의 주체인 의사에게는 실익이 없고 약사와 소프트웨어업체들에게만 편의와 영리추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기술적으로 처방전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D 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였음을 안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협조요청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의학 검사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저감화 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및 의료의 서비스 질 수준향상을 위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안내

「의학용어집 제5판」 출판에 따른 구입 안내

• 의학용어 제5판[국번형판(152×200mm), 고급양장, 가죽표지, 찾기쉬운 홈인덱스, 1,888쪽, 영한·한영 11만 어휘수록], 50,000원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아카데미 ☎ 02-576-0922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실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민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수탁연구사업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9년에도 '국민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를 실시 예정
• 본 조사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및 변경사항의 보건소 신고에 대해 향후 전산화로의 연동을 위한 기초작업이오니, 동 조사의 자료작성 및 제출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토록 안내

자궁경부암 검진시 주의사항 안내

• 최근 자궁경부암 검진기관 중 일부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 등이 검체채취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우려 있어 안내
•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자궁경부세포검사 수행시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산부인과 의사 또는 검진담당 의사가 반드시 직접 채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암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됨

군의원 전역전 민간병원 취업 방지 협조 요청

• 국군무사령부로부터 특별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의하여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에 따라 군의관이 전역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전 취업하거나 대리진료를 할 수 없도록 안내

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 안내

•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복지부 고시 제2009-92호)
• 39. SGCE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0.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41. 체내삼입형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제13회 포항시의사의 날 행사

포항시의사회(회장 김광만)는 지난 4월 5일 위덕대학교 잔디구장에서 제13회 포항시의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A, B, C, D 네 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축구, 족구, 줄당기기, 미니골프, 윷놀이, 바둑, 투호, 2인3각, 단축마라톤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한지공예 등으로 이루어 졌다.

김광만 회장의 개회사, 이석균 경북의사회장의 격려사, 정만진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 및 지난해 우승한 B팀의 우승기 반납에 이어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우승은 포항 성모병원과 개원 5, 6, 7, 8반으로 이루어진 B팀이 차지하였다.

어린이 그림그리기에서는 대상에는 조다연(선린병원 산부인과 조재훈), 금상에 이현우(세명기독병원 외과 이문섭), 은상에 권소현(한빛연합의원 권오수) 어린이가 수상하였으며, 이외에 권민영, 김예원, 김예은, 박선민, 이정민, 이정빈, 이효정, 전다희 어린이 8명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회원들의 기대속에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 1등상은 이재경 회원에게 돌아갔다. 1등 상품은 우미향에서 작년 이어 올해에도 42인치 PDP TV를 협찬하였다.



제3회 포항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4월 26일 제3회 의사회장배 골프대회가 3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에 있는 오펜골프장에서 있었다. 영상 5도라는 조금 추운 날씨 속에서 김광만 회장과 변승열 포항의

료원장의 시타로 시작되었다.

수상자를 보면 메달리스트에는 안효춘(81타), 우승에는 김경철, 준우승에는 정유진, 3위에는 류승일, 4위에는 황석순 회원이 차지하였다. 한편 롱기스트는 문기혁(250m), 니어리스트에는 김경철(2m30), 최다버디에는 김석주(3개), 최다 파에는 이우석, 정재봉, 최다보기에는 오세진, 최다 더블보기에는 변승열, 행운상에는 박찬휘 회원이 차지하였다.



제2회 포항시·후쿠야마시 의사회 교류행사

포항시의사회 김광만 회장을 비롯한 7명의 회원 및 가족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후쿠야마시 장미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간 중 15일·16일 양일 제2회 포항시·후쿠야마시 의사회 교류행사를 가졌다.

포항시의사회원과 후쿠야마의사회의 호소기 회장 및 이노우에 코다마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만찬에서는 호소기 회장의 환영사와 김광만 회장의 답사에 이어 서로간의 선물을 교환하며 두 의사회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한편 후쿠야마시의 인구는 약 49만명이며 의사는 약



590명이라고 한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의사회에서 검진센터와 간호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으며, 오후 6시 30분경 클럽하우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본회 이석균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과 친선을 위해 개최된 골프대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했으며, 도의사회 회무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천시의사회 역대회장 및 영대영천병원장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원·정만진·김대환·이지욱·이석주 전임회장과 배경일 회장을 비롯하여 최재성 총무이사과 권오양 재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특히 영대영천병원 김건호 원장과 박건주 부원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경주시의사회

2009년도 마약류퇴치 홍보 캠페인

경주시의사회(회장 황병욱)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부터 황성공원 술과떡축제 행사장내에서 경주시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술과떡축제 참석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 전단지 배부하는 등 마약류퇴치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황병욱 회장과 박춘근, 백승인, 이봉구, 김장희, 강준오, 마도훈, 민정기, 손형석, 임승근, 이흥우 회원이 참석하였다.



2009년도 춘계야유회 개최

지난 5월 16일 비가 내리던 가운데서도 춘계야유회를 경주 화랑가든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야유회는 비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옥녀봉 등산을 김유



신장군묘 일대를 산보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개최되었으며, 화랑가든 정원에서 회원 및 가족 40명이 둘러앉아 바베큐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자리가 마련되었다.

안동시의사회

5월 월례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목환)는 지난 5월 13일 오후 7시 천하회센터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에 맞춰 회원 친선의 밤과 경북의학제 참가 선수선발 등 회원간 근황을 나누는 친목도모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안동시의사회는 지난 6월 14일 오후1시 떼제배 이스트C.C에서 제13회 회원 친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는 안동시의사회 김목환 회장을 비롯한 최중두, 최유근, 유동명 원로회원 등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였

구미시의사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이경수)는 지난 6월 21일 선산컨트리클럽에서 제15회 구미시의사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는 이경수 회장을 비롯한 박재호, 신재학, 김옥배 회원 등 44명(11팀)이 참가하여 화창한 날씨에 백구의 향연을 펼쳤다. 이날 경기에서 신재학 회원(구미강동병원장)이 영광의 우승의 트로피를 안았으며, 메달리스트에는 이정호(구미차병원) 회원, 준우승에는 이건호 회원(구미차병원), 3위 김병용(해피맘산부인과의원), 4위, 신진식 회원(가톨릭내과의원)이 차지하였다.



영천시의사회

역대회장 및 영대영천병원장과 간담회

영천시의사회(회장 배경일)는 지난 6월 23일 삼합한정식에서

경산시의사회

제16차 정기이사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지난 6월 23일 제1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23일~24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된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참석 보고와 신종인플루엔자 감시협조, 2009년도 회원정기신고 실시 및 회비 납부 요청 등의 보고가 있었으며, 경산시의사회 회원 단합 및 친목도모를 위한 골프대회를 9월 중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울진군의사회

엑스포 행사장에서 무료진료 예정

울진군의사회(회장 이종규)는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울진군의사회에서는 행사장에서 8월 1일과 2일, 8일, 9일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진료를 담당기로 하였다.

● 분회 및 병원소식

울진군의회 월례회 모임

지난 6월 16일 월례 반상회가 바다가의 Guest house에서 열렸으며, 이날 최근 의료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즐겁고 흐뭇한 시간을 보내며 진료실의 시름을 잊어버릴수 있는 모임을 가졌다.

울진관내 의료인 간담회

지난 6월 5일 울진의료원, 울진군보건의료원, 중앙병원, 울진군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의료현안 논의하고 신종플루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 공유기로 합의 하였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연구진료 조인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이경섭)과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정신)은 6월 4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화상정보 회의실에서 국민보건향상과 의료계 발전에 공동 기여할 목적으로 공동연구진료기관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관계에 들어갔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서울아산병원간의 이번 조인식은 진료·교육·연구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의료의 질 향상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병원은 환자 의뢰뿐 아니라 의학정보 교류, 병원 경영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검사의뢰 및 화신, 병원홍보, 전산화 자문, 진료, 교육, 연구지원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의 길이 열렸다.

이경섭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은 "이번 조인식을 통해 임상 진료 및 전공의 등의 인적교류, 최신 의료정보 등 서울아산병원과의 실질적인 교류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항성모병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응급뇌질환 특성화 후보센터,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 선정

포항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응급뇌질환과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로 지정되었다.

전국의 응급의료센터 중 지역별로 최적의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센터만을 선별하여 선정된 이번 중증응급질환 특성



화센터 선정에서 포항성모병원이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동해안 지역에서 응급뇌질환과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로 지정받아 24시간 전문 진료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119 구급대 등과 이송체계 연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료와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포항성모병원이 128채널 MDCT와 고성능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인 3.0T MRI를 도입하여 지역의료의 첨단화를 선도하게 되었다. 128채널 MDCT는 기존의 64채널 MDCT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정밀한 영상획득이 가능하고 촬영속도도 빨라 방사선 피폭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진단영역에서는 특히 관상동맥질환, 심근 및 심장기능 질병진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내시경 없이도 대장암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3.0T MRI는 기존 장비보다 짧은 촬영시간, 2배 이상 뛰어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기존의 장비로 검사가 불가능한 심장·혈관질환, 부인과질환, 전신혈관검사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밖에도 장례식장(요셉관)이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새 단장을 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인 「성모병원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안동병원

개원 27주년 '글로벌 경영' 선포

안동병원이 5월 20일 개원 27주년을 맞아 강보영 이사장, 김광림 국회의원, 김휘동 시장 등 지역 인사와 직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글로벌 경영'을 선포했다. 안동병원은 이날 정부로부터 받은 뇌·심장·중증외상 등 3개의 특성화센터 지정 기념식도 함께 마련했다.

안동병원은 기념식에서 진료분야의 특성화와 차별화된 서비스, 고품격 의료품질을 통한 '글로벌 경영'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동병원은 그동안 정부가 지정한 뇌질환·심장질환·중증

외상 등 3대 중증응급 특성화센터와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암센터, 척추관절센터, 여성전문센터, 소화기센터, 호흡기센터, 비뇨기센터 등 센터로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안동성소병원

아프리카 오지 찾아 사랑의 인술 펼쳐

안동성소병원(이사장 권중원, 병원장 박승국)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의료원장 차순도)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해외의료봉사단이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에티오피아의 오지지역을 찾아 사랑의 인술을 펼친다.

올해로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안동성소병원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연합봉사단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명성교회(당회장 김삼환 목사)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세운 종합병원인 MCM과 한국전쟁 참전용사촌 등 인근 부락을 찾아다니며 무료진료와 수술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펴게 된다.

이번 아프리카 의료봉사 활동에는 성소병원과 동산의료원의 성형외과와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의 전문가가 MCM에서 수술과 진료를 맡게 되며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외곽지 순회 진료를 통해 약 1천여명을 진료할 예정이다.

한편 안동성소병원의 이번 아프리카 의료봉사 활동은 지난 2005년에 이은 두 번째 봉사활동이며 지난 2002년에는 의료 취약국가인 캄보디아를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또 동산의료원 역시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중앙아시아 일원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펼쳐왔다.

박승국 안동성소병원장은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성소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이번에 함께 아프리카를 찾아



의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병원을 개척한 선교사님의 의료선교 정신과 사명을 먼 이국 아프리카에 다시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군 국제결혼가정연합회 자매결연

안동성소병원(이사장 권중원, 병원장 박승국)과 영양군국제결혼가정연합회(회장 심상국)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1시 영양군종합복지회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북부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동성소병원은 지난해 5월 외국인진료센터(소장 이충원)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면서 안동 등 북부지역의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펼치는 등 지역내 다문화가정에 의료혜택을 늘려왔으며 월 평균 100여명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찾아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신관병동 '나눔관' 준공식 성료



안동의료원(의료원장 신현수)은 지난 5월 6일 오후 5시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휘동 안동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관병동인 '나눔관'을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나눔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의 첫 결실을 맺는 사업으로, 85억원을 들여 연면적 5,142㎡에 지상 5층 16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또한, 입원

● 분회 및 병원소식

및 내원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치료를 돕는 치유 정원 3곳과 다양한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서도 하늘과 햇살, 바람 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환자 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현수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민들의 아픔과 건강, 행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 ‘나눔관’이라 이름 지었 다며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용 도지사와 김휘동 안 동시장, 김광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의료계를 대표하여 본 회 이석균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여성 결혼이민자 등 무료진료

순천향대구미병원 의료봉사단은 지난 6월 20일 경북 구미 지역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은 의료 봉사단은 내과·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소변·혈액·심전 도·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다.

이번 봉사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최근 구미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와 가족들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생 활을 지원하기 위해 베 트남·태국·중국·필 리핀 등의 이민자 가정 의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미차병원

심혈관센터 개소식

CHA 의과대학고부속 구미차병원은 지난 6월 30일 심혈 관센터를 개설했다. 새로 문을 연 구미차병원 심혈관센터는 30여억원을 투자, 최첨단 3차원 디지털영상 혈관조영촬영장 비를 설치했다.

이 장비는 두부·흉부·복부·사지 혈관 등 인체 내 모든 혈 관의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초정밀 최첨단 기기이 다. 영상의 획득·처리·시현 및 저장 과정에서 화상의 해상



력이 매우 탁월하고, 실시간 디지털 영상 시현이 가능해 보 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심장혈관에 대한 풍선 성형술·스텐트 삽입 시 술 등을 시행할 수 있어 협심증·심근경색·부정맥 등 각종 심장질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주가톨릭병원

안동성소병원과 협약 체결

영주가톨릭병원(병원장 엄동환, 이병관)과 안동성소병원(이사 장 권중원, 병원장 박승국) 간의 협력병원 체결식이 24일 영 주가톨릭병원 1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동환 영주가톨릭병원 원장과 권중원 성소 병원 이사장 등 양 병원 임직원 20여명과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해 축하했으며, 엄동환 영주가톨릭병원장은 “개원 100주년을 자랑하는 안동성소병원과 협력병원 체결을 맺을 수 있어 기쁘고 양 병원이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발전은 물론 다양한 의학 정보를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 혀다.

청송군보건의료원

안과 진료 및 무료개안수술

청송군보건의료원(의료원장 김성수)과 서울남산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단은 안과 의료기관이 없는 청송군민을 대상으로 오 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에서 안과 진료 및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의사 14명, 간호사 8명 등 총 33명의 진료팀으로 구성되어 익상편, 백내장 중심으로 진료할 예정 이다.



안길룡 안외과의원(김천)

기도

세상이 잠든 이 푸른 새벽
내 영혼이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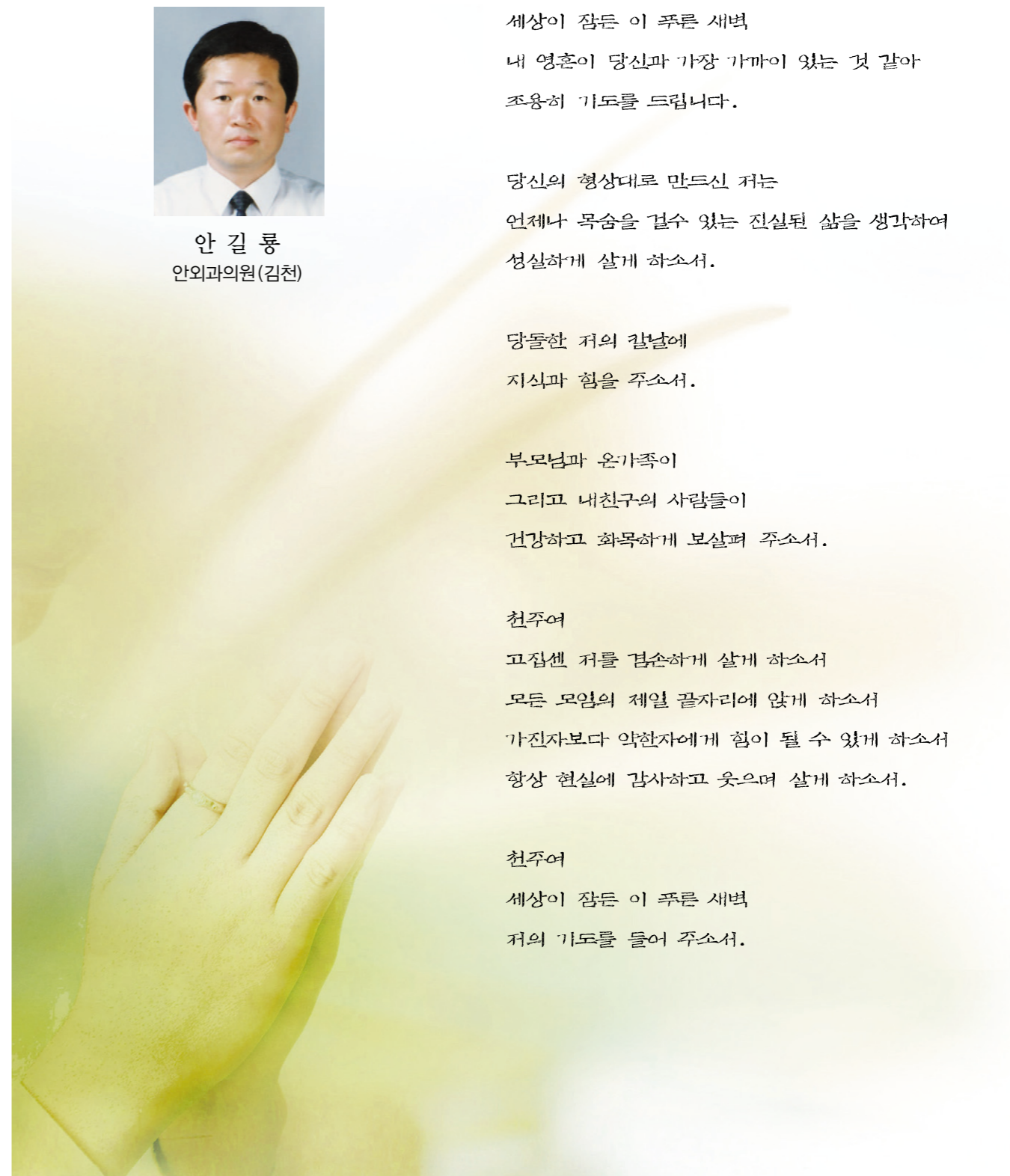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저는
언제나 목숨을 걸수 있는 진실된 삶을 생각하여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당돌한 저의 갈날에
지식과 힘을 주소서.

부모님과 온가족이
그리고 내친구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보살펴 주소서.

천주여
고집센 저를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모든 모임의 제일 끝자리에 앉게 하소서
가진자보다 약한자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소서
항상 현실에 감사하고 웃으며 살게 하소서.

천주여
세상이 잠든 이 푸른 새벽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차마고도 茶馬古道

雪山을 지나
저처럼 높고 아름다운
길이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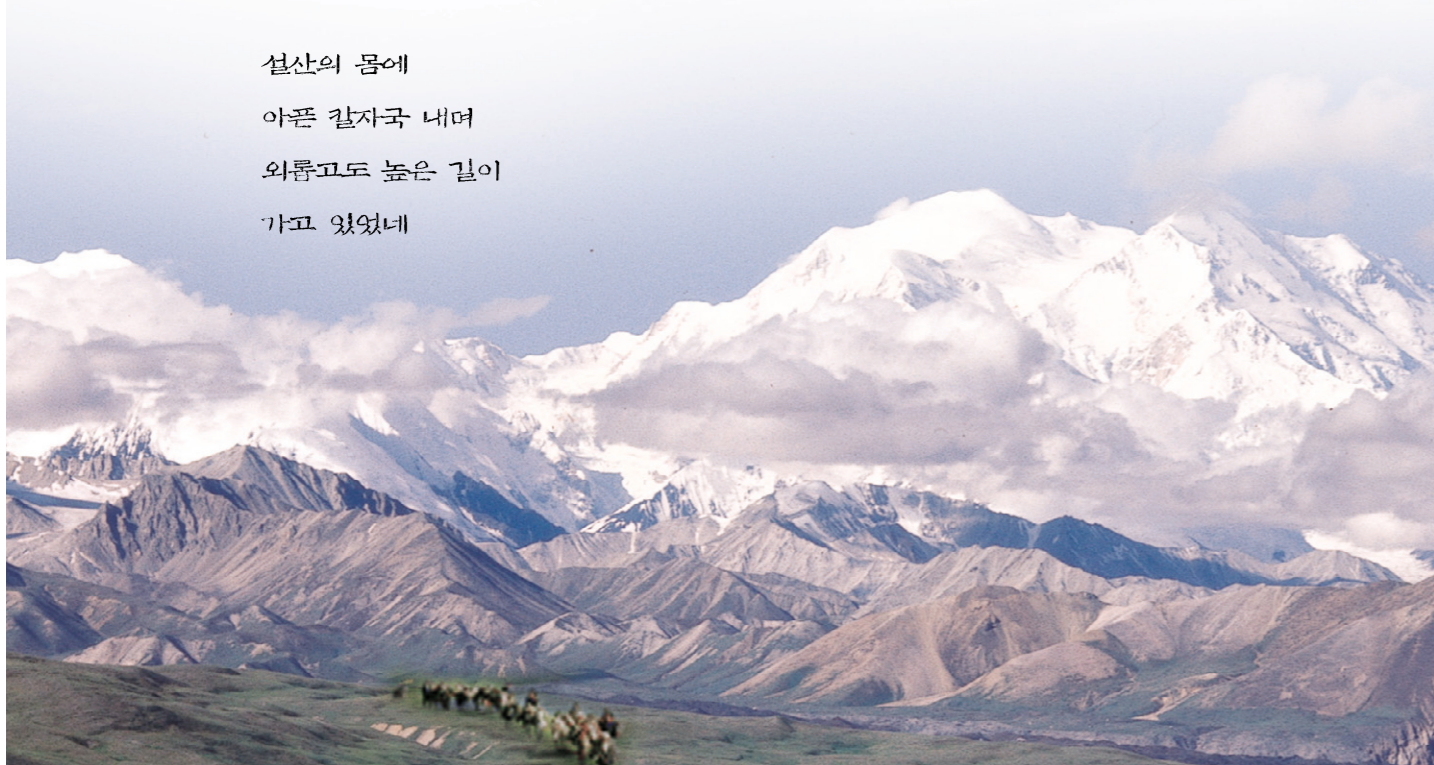
설산이 녹아
흐르는 강은 깊고 차
외줄에 나귀와 함께
매달려 가네
협곡 건너
설산을 넘어
이번 생은 끝이라네

저 강을 건너면
나귀와 마주 앉아
쓰촨의 차를 마시리

설산의 몸에
아픈 갈자국 내며
외롭고도 높은 길이
가고 있었네



권 세 홍
안동병원



5월과 카네이션



웃어른들에게 사랑과 공경의 뜻으로

5월하면 누구나 카네이션을 떠올리지 싶다. 나는 흰 카네이션을 마음에 품고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면 눈물이 난다. 반면에 자녀들에게 카네이션을 받으면서 기쁨을 맞본다. 그럴 때는 카네이션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되새겨 보게 된다. 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달아주게 되는데 그 유례는 1910년 미국에 안나 자비스라가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고, 1914년 톰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하면서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우리도 어버이날에 웃어른들에게 사랑과 공경의 뜻으로 달아드리는 관습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빨간 카네이션은 부모가 살아계신 자식들이 달기도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흰 카네이션을 단다. 나는 과거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판사들과 함께 이혼 소송 건을 조정하는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때 사건 중 5월에, 60대 할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할아버지가 이혼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 가슴에는 빨간 카네이션이 달려 있었고, 할아버지는 꽃이 달려 있지 않았다. 딸에게 그 사연을 들어보니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젊은 날에 가장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다. 카네이션의 꽃말은 자비로움이다. 그런데 꽃 색깔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 흰색은 나의 사랑, 빨강은 열렬한 사랑, 분홍은 부부의 애정을 표하며 황색꽃은 당신을 경멸한다는 뜻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한다. 자녀들이 달아주는 빨간 카네이션만 알고 있다가 카네이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고 나니 근래에 정치·경제·사회·여러 분야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원성과 지탄을 받아 황색카네이션을 달아야 할 분들이 종종 등장하여 서글프다. 부디 의사들은 그러한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행복한 가정이 사회를 밝게 한다. 오월에는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며 효심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는 그 소임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존경 받는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가정의 꽃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여 해맑고 평화로운 미소로 자라나게 하고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인재들로 성장시키는 것도 부모의 도리일 것이다. 부부간에는 분홍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온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며 평화가 충만한 행복한 가정을 꾸며 가길 소망해 본다.



전 경 홍
수필가, 동산가정의학과의원(문경)

강물은 흐르는데...



어머니 마음처럼 깊이도 넓이도 추측할 수 없어

해발 767m의 칠보산 중턱에서 해안을 내려다보면 대진, 덕천, 병곡 등 세 곳의 하얀 백사장이 서로 이어진 멋진 고래볼 해수욕장이 보인다. 물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하얀 거품의 파도가 밀리는 넓은 백사장이며 우거진 송림과 도도하게 흐르는 송천강이 아주 잘 어울리는 멋진 경관에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대진 해수욕장과 덕천 해수욕장 그리고 병곡 해수욕장을 통틀어 고래볼 해수욕장으로 통칭하고 있다. 자연을 즐기고 파도에 쫓기는 희롱이 즐겁고 경비행기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라면 자주 고래볼 해수욕장을 찾게 마련이다.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말끔하고 산뜻하게 자연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덕분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고래볼은 청정해수욕장인 동시에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연친화적인 명소다. 풍부한 먹을거리와 칠보산의 정겨움은 물론이고 백암온천의 따듯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준다. 그 중에서도 고래볼 해수욕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건 아마도 송천강이 아닌가 한다.

송천강은 동해로 흐르는 다른 강과는 사뭇 다르다. 동해로 흐르는 물줄기 중에서 형산강과 태화강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강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북천, 오십천, 미읍천, 남대천, 가곡천, 왕피천 등 거의가 하천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 하천 가운데에서도 유독 '송천'은 하천의 범주에서 벗어나 '송천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만큼 수량도 많고 폭도 넓고 규모가 여느 하천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오염이 되지 않아서 물고기가 많고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때문에 철새가 도래하고 물고기와 조류의 먹이 사슬이 잘 유지되고 있다. 상대산과 기막히게 어울리는 송천강의 강둑을 거닐면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마력에 듬뿍 빠져들게 된다.

지난해 지자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완성했다. 바다로 들어가는 강 하구의 물은 맑고 깨끗해서 강가에는 항상 갈매기와 재두루미를 비롯해서 텃새는 물론이고 여러 종류의 철새가 찾아든다. 때로 물수리가 상대산 산정에서 사냥을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한다. 가끔 길을 잘못 든 고라니가 출현하기도해서 좋은 눈요깃감이 되곤 한다. 어둠이 질게 깔리면 부엉이가 출현할 때도 있었다.

고래볼 해수욕장에는 길게 늘어진 소나무 숲을 따라서 500m 가 조금 넘는 경비행장 활주로는 있다. 활주로를 걷는 일은 아주 색다른 재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백사장과 활주로를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파도가 밀려오는 해안선을 아주 가깝게 따라서 걷는다. 파도가 흔적을 말끔하게 지운 고운 모래밭에 발자국 도장을 찍는 건 아주 흐뭇하다. 마치 어딘가를 처음으로 개척하는 묘하고 야릇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파도소리를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다시 들리는 듯 착각을 하기도 한다. 그 속에서 때로 끊어질듯 이어지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작전지역 근처에서 돌아올 때는 백사장의 하얀 모래를 밟으며 돌아온다. 시발점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싸늘한 날씨인데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모래 위를 걷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평평한 활주로를 끝까지 걸어보면 발걸음이 참으로 가볍게 느껴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길은 솔밭 속으로 방향을 바꾸어 잡초대신 모래위에 펼쳐진 솔잎을 조용히 밟으며 땀을 식힌다. 키가 큰 해송으로 만들어진 터널을 따라 걷다보면 마치 신선놀음을 하는 양 착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걷는 동안 많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런 시간이 또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물병을 기울여 한 두 모금만 마셔도 참으로 상쾌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왕복하는 동안 조금도 지루하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한 시간 이상을 그렇게 걸었다. 그러는 중에 어느새 손수건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버렸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니 불현듯 생각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고맙게만 느껴지고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땀방울을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하얗고 깨끗한 대접에 시원한 물 한 그릇을 건네주시던 가슴 뭉클한 기억이 솟구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건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영해는 참으로 복 받은 곳임에 틀림없다.

백두대간은 물론이거니와 태백산맥은 동해의 맑은 바다와 너무도 잘 어울리게 웅장한 기상을 자랑하고 있다. 하얀 포말이 일어나는 해안선에서 바라보는 태백산맥의 분수령은 깊은 송림과 울창한 숲을 뿜내고 있다. 포도산 정상에는 풍력 발전소가 또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의 곰치 농장은 부지런한 아낙네들의 삶터이기도 하다. 이른 아침에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영롱한 이슬이 웅달샘을 이루고, 산정의 웅달샘이 실개천이 되는 모습은 삶에 찌든 주름을 펴지게 한다. 실개천을 따라가 보면 모르는 사이에 시



이종규
연세대학교의학과원(울진)

냇물이 되어 있다. 물은 마을 아낙네들에게 정겨운 빨래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물이 흐르는 맑은 소리에 피로감이 싹 가신다.

바위를 돌아돌고 낙차가 그리 크지 않은 폭포를 몇 개 만들더니 규모가 커지면서 금세 개울로 모양이 바뀐다. 하상에 돌맹이를 쌓아 큼직한 바위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한 여름 개구쟁이들의 물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의 개울물이 합수하면서 물소리는 오히려 엄숙해지고 근엄해진다. 몇몇 골짜기에서 흘러 온 개울은 마을입구에서 합류되더니 이제는 물속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개울이라고 할 수 없을 정



도로 규모가 커졌다. 물속을 유영하는 커다란 물고기가 눈에 띈다. 물가에는 갈대숲이 무성하고 버드나무가지가 바람에 일렁인다. 낚시꾼들은 흐릿한 웃음으로 월척을 들어 올리며 자화자찬 하느라 입가에 침이 마르지 않는다.

물줄기는 어느새 생활의 동력이 되었다. 넓은 들판을 가로 지르며 여기저기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가축들에게는 생명수가 되기도 했다.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도하고 생활용수를 제공하기도 한다. 과수원을 지나는 동안 과일은 감로수를 흡수하느라 빨갭게 홍조가 되었다.

다양한 물고기들의 안식처가 되면서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른다. 하천은 강물을 이루면서 참으로 포근한 모습으로 변신을 했다. 분수령에서 시작한 물방울이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완벽하게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그만 고개가 숙여 진다.

바다를 눈앞에 둔 송천강이 모래톱을 수월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면서 망설이는 모습이 사뭇 마음에 걸린다. 강을 이루면서 목적지인 바다까지 왔는데도 또 무언가 그토록 미련이 많기에 넓고 자유로운 바다로 빨리 가지 못하고 모래톱에서 걸음을 멈추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지... 흘러가는 속도가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토록 희생하며 온 대지를 적시고 수많은 동식물의 먹이 사슬을 유지해 왔으면서도 또 무슨 할 일이 있어서 저토록 주춤거리고 있는 걸까?

맑고 깊은 강물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면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바로 눈앞이 바다인데 소용돌이치면서 많은 미련을 남기는 모습에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진다. 깨끗한 소용돌이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동심원은 어머니의 잔잔한 미소였다. 차마 눈을 감지 못하시던 모습이 왜 그리도 또렷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조금씩 일그러지던 동심원은 미련과 한숨을 조용히

끌어안고 바닷가 모래톱을 겨우 넘어섰다. 순식간에 바다의 품에 안겨 눈 깜짝하는 사이에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예쁜 너울을 만들었다. 그리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고래볼 다리위에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직도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추측할 수가 없다. 마치 어머니 마음처럼...

평생을 쉴 새 없이 양보와 희생으로 일관했는데도...

명예를 벗어 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바다를 눈앞에 두고서도 무슨 미련이 더 남아서 왜 쉽게 모래톱을 넘어가지 못했을까?

아마도 저 동심원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는 결코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것만 같다.

여전히 강물은 흐르고 있는데...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 그리고 phosphodiesterase-5 (PDE-5) 억제제



동국의대 비뇨기과 교수 이 경 섭

최근 하부요로증상(lower urinary tract symptom)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이후 두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에서 40~70세 1,2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52%에서 경증, 중등도 및 완전 발기부전이 보고될 정도로 발기부전의 빈도가 높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의한 하부요로증상은 60세 이상의 남성에서 50%의 빈도를 나타내는 아주 흔한 질환이며 80세가 넘으면 80%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전립선비대증을 가진 환자의 거의 반 이상은 중등 혹은 심한 하부요로증상으로 고통을 받는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은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 두 질환 모두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노인에게 공존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높다.

저자는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의 상관관계를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치료에 대하여서도 알아 보고자 한다.

1.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의 상관관계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관련이 없다는 보고 등 다양하다. 최근 대단위 역학조사의 결과들은 두 질환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많다.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아주 다양하며 특히 나이, 비만, 하부요로증상,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흡연 등이 있으며 이들 인자 중 하부요로증상은 나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기부전에 대한 비교위험도(relative ratio; 1.8-7.5)가 높다. Multinational Survey of the Aging Male(MSAM-7) 연구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나이와 동반 질환을 배제하고도 환자의 국제발기능지수(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와 국제전립선증상지수(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다른 보고는 50세 이상 남성의 1/3은 하부요로증상을 가지고 있고 하부요로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62%는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의 많은 보고에 의하면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를 진료할 때 두 질환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의 분자생물학적 연관성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이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이 제안되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된 바는 없는 실정이다. 발기와 발기해소

(detumescence)는 음경 해면체 평활근의 이완과 수축의 결과에 기인한다. 50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남성에서 전립선 조직이 비대 되고 이는 방광출구폐색을 일으키고 잔뇨감, 빈뇨, 요 끊김, 야간뇨, 세뇨, 지연뇨 및 요점적 등의 하부요로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방광출구폐색은 음경 해면체의 이완에 영향을 미쳐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이 발기부전의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역학적인 관련성이 입증됨에 따라 두 질병 간의 분자생물학적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보고되었다.

첫째, 비대된 전립선 조직은 정상 조직에 비해 음경 해면체의 이완에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인 nitric oxide(NO)와 nitric oxide synthase(NOS)의 감소를 일으키고 이는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에 장애를 일으켜 발기부전이 생긴다는 것이다. 두 번째, Rho-kinase 및 Endothelin-1(ET-1)의 활성화에 관한 가설이 있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방광출구폐색이 되면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수축은 증가시키는 반면 이완이 감소된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데는 Rho-kinase와 ET-1의 활성화 증가가 주된 역할을 한다. 특히 ET-1은 모든 혈관근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축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음경해면체의 혈관내피세포에서도 생성되어 음경해면체 내 평활근에서도 지속적인 수축을 일으키게 된다.

이 외에도 alpha-adrenergic 수용체의 불균형, 골반 내의 작은 혈관들의 동맥경화증, 방광, 전립선과 음경에 동시에 작용하는 자율신경의 과반사 등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전립선비대증이 발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기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저자들의 경우 방광경부분폐색을 시킨 백서를 통한 실험을 통해 eNOS/ NO의 감소, ET-1과 RhoA binding kinase β(ROKβ)의 증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혈관과 혈관주위 평활근의 효과적인 확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전립선비대증이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3. 전립선비대증과 phosphodiesterase-5 억제제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이 모두 있는 환자에서 phosphodiesterase-5 억제제인 sildenafil, vardenafil, tadalafil, udenafil, mirodenafil을 복용할 경우 발기력이 상승함은 물론 하부요로증상도 함께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다. Phosphodiesterase-5 억제제는 음경해면체 근육에 NO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음경의 발기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방광경부와 전립선의 이완으로 인해 하부요로증상도 호전시킨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약효 지속 시간이 72 시간인 tadalafil 5mg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 하부요로증상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발기력도 향상된다고 하였으며 현재 tadalafil 5mg이 시판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이 같이 있는 환자에서 알파 차단제와 udenafil을 투여한 결과 큰 부작용 없이 하부요로증상의 개선과 함께 발기부전도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은 발기부전과 관련에 대하여서는 분자생물학적으로 입증되어 두 질환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tadalafil 5mg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 두 질환 모두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가격적 부담은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은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저자는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과의 상관관계를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치료에 대하여서도 알아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Feldman HA, Goldstein I, Hatzichristou DG, Krane RJ, McKinlay JB. Impotence and its med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results of the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 J Urol 1994;151:54-61
2. Chung WS. The relationship between benign prostate hyperplasia and erectile dysfunction: What is Reality?

Korean J Androl 2005;23:111-5

3. Rosen R, Altwein J, Boyle P, Kirby RS, Lukacs B, Meuleman E, O'Leary MP, Puppò P, Robertson C, Giuliano F.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and male sexual dysfunction: the multinational survey of the aging male(MSAM-7). Eur Urol 2003;44:637-49
4. Chang S, Hypolite JA, Zderic SA, Wein AJ, Chacko S, DiSanto ME. Enhanced force generation by corpus cavernosum smooth muscle in rabbits with partial bladder outlet obstruction. J Urol 2002;167:2636-44
5. Blanker MH, Bohnen AM, Groeneveld FP, Bernsen RM, Prins A, Thomas S, Bosch JL. Correlates for erectile and ejaculatory dysfunction in older Dutch men: a community-based study. J Am Geriatr Soc 2001;49:436-42
6. Podlasek CA, Zelner DJ, Bervig TR, Gonzalez CM, McKenna KE, McVary KT. Characterization and localization of nitric oxide synthase isoform in the BB/WOR diabetic rat. J Urol 2001;166:746-55
7. Schulz E, Anter E, Keaney JF Jr. Oxidative stress, antioxidants, and endothelial function. Curr Med Chem 2004;11:1093-104
8. Harrison DG. Endothelial dysfunction in cardiovascular disease: the role of oxidant stress. Circ Res 2000;87:840-4
9. Chang S, Hypolite JA, Zderic SA, Wein AJ, Chacko S, DiSanto ME. Increased corpus cavernosum smooth muscle tone associated with partial bladder outlet obstruction is mediated via Rho-kinase. Am J Physiol Regul Integr Comp Physiol 2005;289:1124-30
10. Khan MA, Dashwood MR, Thompson CS, Auld J,

Morgan RJ, Mikhailidis DP. Down-regulation of endothelin-B receptor sites in cavernosal tissue of a rabbit model of partial bladder outlet obstruction: potential clinical relevance. World J Urol 1999;17:290-5

11. Sullivan ME, Dashwood MR, Thompson CS, Muddle JR, Mikhailidis DP, Morgan RJ. Alterations in endothelin B receptor sites in cavernosal tissue of diabetic rabbits: potential relevance to the pathogenesis of erectile dysfunction. J Urol 1997;158:1966-72
12. Rajasekaran M, Kasyan A, Jain A, Kim SW, Monga M. Altered growth factor expression in the aging penis: the Brown-Norway rat model. J Androl 2002;23:393-9
13. Park K, Ahn KY, Kim MK, Lee SE, Kang TW, Ryu SB. Intracavernosal injection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mproves erectile function in aged rats. Eur Urol 2004;46:403-7
14. Yamanaka M, Shirai M, Shiina H, Tanaka Y, Enokida H, Tsujimura A, et al.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stores erectile function through inhibition of apoptosis in diabetic rat penile crura. J Urol 2005;173:318-23
15. Roehrborn CG, McVary KT, Elison-Mboussa A, Viktrup L. Tadalafil administered once daily for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secondary to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a dose finding study. J Urol 2008;180:1228-34
16. Chung BH, Lee JY, Lee SH, Yoo SJ, Lee SW, Oh CY. Safety and efficacy of the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udenafil and an α-blocker in men with erectile dysfunction concomitant with BPH/LUTS. Int J Impo Res 2009; 21: 122-128



시사 삼행시 입상작

지난 5월 24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시사 3행시 및 사행시에 「황산벌, 오월축제」의 시제에 총 6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장 원

오월축제 _ 이 영 희(포항, 신명준외과의원 가족)

오랜세월 지켜왔던 정결한 그 마음
월계수, 너의 꿈을 가지를 뺏어 하늘을 향한다
축복처럼 네몸의 가장 아름다운 꽃잎을 난분분 날리면서도 즐거움에 떨던 너는
제 몸을 바쳐 마침내 아픈이의 그늘이 되는 이 땅의 의사를 닮았구나

차 상

오월축제 _ 이 미 숙(영주, 신영주내과의원 가족)

오늘의 만남은 비록 짧아도
월광소나타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축제의 즐거움은 잔상으로 남아
제비꽃 향기로 우리를 채우리

황산벌 _ 김 태 숙(김천, 최인환의원 가족)

황무지 적박한 마음에 용기의 씨를 뿌려줄 수 있고
산골짜기 마른가지에서 생명을 볼 수 있다면
별써 그대는 상처입은 생명에게 희망의 숨을 쉬게 해주는 자이지요

차 하

황산벌 _ 장 유 석(경산, 장유석외과의원)

황성옛터 경주에서
산과들 길푸른 5월에 함께한 의사 가족들
별써 31돛 맞은 경북의학제에서 하나가 되리라

황산벌 _ 김 동 욱(구미, 조은의원)

황산이 좋다하나 경주남산에 비하리오
산과 호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5월의 경주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별과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 코오롱호텔 뒤뜰로 간다더니 우리
경북의사회 회원과 가족들이 향기 가득한 만개한 꽃인게로구나

오월축제 _ 김 남 석(경주, 경주중앙병원)

오기로 살지말라 누누이 일렸건만
월급날 봉투털어 주식을 사는구나
축재할 생각으로 기쁨에 들떴더니
제대로 걸렸구나 휴지된 주식이며

참 방

황산벌 _ 최 경 수(안동, 최비노기과의원)

황사도 없고 바람도 살랑살랑 날 한번 잘 잡았구나!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장소 한번 잘 잡았구나!
별써 분위기 무르익는구나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오월축제 _ 석 제 홍(김천, 석제홍제통의원)

오월말이 되면 매년 떠오르는 신라의 달밤
월광에 비치는 불국사의 정취와
축제 분위기의 경북의학제가 한데 어울려
제대로 된 화합의 한 마당이 펼쳐집니다.
힘냅시다 의학인들이여!

오월축제 _ 윤 세 진(경산, 윤중수내과의원 자녀)

오늘은 일요일
월요일 전날
축제를 즐기며
제(재)미있게 놀아요



• 동원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 신용과 성실을 바탕으로

• 새롭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신용과 성실의 의약품 유통 Since 1968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의 표준
(주)동원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표이사

 (주)동원약품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780 | 대표전화 053)381-5555 | 팩스 053)381-6658 | 홈페이지 <http://www.ipharmkorea.co.kr>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본회 회무홍보 및 지역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소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쌓여진 연구의 높이가 코자[®]를 말해 줍니다

2004 LIFE Atrial fibrillation subgroup, *JACC*⁹
LIFE Albuminuria, *J Hypertens*⁸
Echocardiographic subgroup analysis, *Circulation*⁷
RENAAL subgroup for Asian populatoin, *Diabetes care*⁵

2008 LIFE LVH, *J Hypertens*¹⁶
LIFE women with hypertension and LVH, *Hypertension*¹⁵
LIFE gender differences in left ventricular structure & function, *Hypertension*¹⁴
LIFE new-onset heart failure prediction with albuminuria and strain, *AJH*¹³

2002 LIFE ISH subgroup, *JAMA*⁶
LIFE Diabetes subgroup, *Lancet*⁴
LIFE Primary publication, *Lancet*³

2007 LIFE 24-hour ambulatory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¹²

2001 RENAAAL Primary publication, *NEJM*²

2005 LIFE subgroup for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JACC*¹¹
Losartan in hypertensive children, *AJH*¹⁰

1997 ELITE, *Lancet*¹

ELITE : Evaluation of Losartan in the Elderly Study¹
RENAAL : Reduction of Endpoints in NIDDM with the Angiotensin II Antagonist Losartan²
LIFE :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³
ISH :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³
LVH : Left Ventricular Hypertrophy¹⁶

일부에 대한 투여 : 사람에게 있어서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의 발육에 따른 태아의 신장 관류는 임신 27에 시작되므로, 임신 2, 3기에 코자를 투여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은 증가합니다.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임신 2, 3기에 복용시 발육 중인 태아에게 손상 또는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자는 임부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임신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합니다.

처방하시기 전에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s 1. Pitt B, Szajd R, Martinez FA et al. Randomised trial of losartan versus captopril in patients over 65 with heart failure (Evaluation of Losartan in the Elderly Study, ELITE). *Lancet*. 1997;349:747-53. 2. Brenner BM et al. Effects of losartan on renal and cardiovascular outcome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nephropathy. *N Engl J Med* 2001;345:861-9. 3. Dahlöf B et al.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in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 study (LIFE): a randomised trial against atenolol. *Lancet*. 2002;359:995-1003. 4. Lindholm LH et al.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diabetes in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 study (LIFE): a randomised trial against atenolol. *Lancet*. 2002;359:1004-10. 5. Kjeldsen SE et al. Effects of losartan on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 and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a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LIFE) substudy. *JAMA*. 2002;288(12):1491-8. 6. Chan JC et al. Renin angiotensin aldosterone system blockade and renal diseas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 Asian perspective from the RENAAAL Study. *Diabetes Care*. 2004;27(4):874-9. 7. Devereux RB et al. Regression of hypertensive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by losartan compared with atenolol: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 (LIFE) trial. *Circulation*. 2004;110(11):1456-62. 8. Ibsen H et al. Does albuminuria predict cardiovascular outcome on treatment with losartan versus atenolol in hypertension with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A LIFE substudy. *J Hypertens*. 2004;22:1805-11. 9. Wachtelli K, et al.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ade Reduces New-Onset Atrial Fibrillation and Subsequent Stroke Compared to Atenolol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 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LIFE) Study. *J Am Coll Cardiol* 2005;45:712-9. 10. Shahinfar S et al. A double-blind, dose-response study of losartan in hypertensive children. *Am J Hypertens*. 2005;18:183-90. 11. Wachtel K et al.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in hypertensive patients with a history of atrial fibrillation: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 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 (LIFE) study. *J Am Coll Cardiol*. 2005;45:705-11. 12. Bang LE et al. Losartan versus atenolol on 24-hour ambulatory blood pressure. A LIFE substudy. *Blood Pressure*. 2007;16:392-7. 13. Ohn PM et al. Combination of the electrocardiographic strain pattern and albuminuria for the prediction of new-onset heart failure in hypertensive patients: the LIFE study. *Am J Hypertens*. 2008;21:273-9. 14. Gerds E et al. Gender differences in left ventricular structure and function during antihypertensive treatment: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 2008;51(11):924-14. 15. Oh J, et al. Effects of losartan in women with hypertension and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results from the Losartan Intervention for Endpoint Reduction in Hypertension Study. *Hypertension*. 2008;51(4):1103-9. 16. Cicala S et al. Clinical impact of "no-treatment" wall motion abnormalities in hypertensive patients with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the LIFE study. *J Hypertens*. 2008;26:806-12.

MSD 한국엘에스디(주) Copyright © Merck & Co., Inc., Whitehouse Station, NJ, USA, 2008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미래에셋생명빌딩 11층 (전화)02-6363-0114 http://www.msd-korea.com 12-2009-CZR-2008-KR-4278-J

COZAAR[®] (losartan)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E.I. du Pont Nemours & Company, Wilmington, Delaware, U.S.A.

●원료인물 및 그 분량

50mg정 1정(54.55 mg) 중
주성분 : 로자틴 칼륨(법규)..... 50.00 밀리그램
(로자틴으로서) 45.8 밀리그램
100mg정 1정(309.05 mg) 중
주성분 : 로자틴 칼륨(USP)..... 100.00 밀리그램
(로자틴으로서) 91.6 밀리그램

●성상

50mg 정 한 면에 952기 새겨진 백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
100mg 정 한 면에 950기 새겨진 백색의 불투명형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1. 고혈압의 치료 2. 고혈압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가진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용법·용량

1. 고혈압
초회용량 유지량은 신사과 관계없이 1일 1회 50mg 이다. 치료 시작 후 2~6주 후에 최대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난다. 필요한 경우 1일 1회 100mg 까지 증량할 수 있다. 고혈압/신장병환자/혈관내 주요 혈액량 감소 환자/간장애 환자/간장애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 대한 용법·용량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할 것.
2.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치료
초회량은 1일 1회 50mg 이다. 혈압에 따라 1일 1회 100mg 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 약은 인슐린, 설탕 등의 혈당강제제(예, sulfonylureas, glitazones, glucosidase 억제제)와 병용투여할 수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태아/신생아 이환율 및 사망률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들의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저해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로 수십례가 보고된바 있다. 따라서 만일 임신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임신 2, 3기에 레닌-안지오텐신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들을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 저혈압, 신생아 두개골 형성지하중, 무뇨증, 기억력/비가역적 신부전을 포함한 손상 및 사망까지도 유발되었다. 영수과소증 또한 보고되었으며, 이는 영소년 태아의 신기능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 경우 영수

과소증은 태아 사지연축, 두개안면기형 및 폐 발육부진등과 관련이 있다. 미숙, 저온 내 성장지연 및 면역감염질환 등도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 발현이 약물의 투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임신 17예만 확인되는 자궁내에서의 약물 노출에 의해 발생되는 것 같지는 않다. 태아와 태아가 임신 17에 한해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노출된 경우 임부에게 반드시 위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약의 복용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

이 약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대한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대체로 환자의 일부 중 한명 골이 하로 발현 임신 17의 배/태아에 한하여 사용하되 임부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시켜야 하며, 양자 내 혈당을 확인하기 위해 알반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수과소증이 관찰될 경우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투여를 제외하고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임신 주수에 따라 수축소트레스검사(Contraction Stress Test)를 비부하검사(Non-stress Test) 혹은 생화학학적 프로파일(Biochemical Profiling) 등의 검사가 정상일 수 있다. 하지만 태아에게 이미 비가역적 장애가 발생 한 이후에도 영수과소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안지오텐신 II수용체 길항제에 대한 자궁 내 노출의 병력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저혈압, 소변감소증 및 고칼륨혈증의 증상들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만일 소변감소증이 관찰되었을 때는 혈압 및 신장관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저혈압을 회복시키고, 저하된 신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교환수액이나 투석을 할 수도 있다.

이 약은 젖의 태자 및 새끼에서 체중 감소, 육체/행동 발달 지연, 사망률 및 신장독성을 포함한 이상 반응을 유발하였다. 신생아에서 체중증가율 감소(10mg/kg/day)의 낮은 투여량에서 당형 병은 것 인데, 제외하고는 이러한 이상반응들이 반복된 것은 25mg/kg/day를 초과한 투여량에서였다(mg/m²에 근거하여 사람의 최대권장용량인 100mg의 약 3배에 해당됨). 이러한 이상반응들은 임신 말기 및 수유 중 약물의 노출에 기인한 것이다.

2. 저혈압-혈관 내 유효 혈액량 감소 환자
혈관 내 유효 혈액량 감소(intravascular volume depletion) 환자에서 들어, 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처음 투여하였을 때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 투여전에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거나 저용량에서부터 약물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용법·용량 항 참조)

2. 다음 환제는 투여하지 말 것
1) 일부 O₂ 일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2) 이 약의 성분과 관련된 환자

3. 다음 환제는 신중히 투여할 것
1)노제 투여중인 환자, 알려진 열분해한 환자, 혈액 투석중인 환자.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로자틴군의 발현율이 1% 이상으로서 위약군보다 빈도가 높은 이상반응은 근경련, 요통,

허지통, 어지러움, 비충혈, 상기도감염, 부비동염이었으며, 로자틴군에서 발현율 1% 이상이었으나 위약군의 발현율이 로자틴군과 유사하거나 높은 이상반응은 구역, 설사, 소화불량, 기침, 비비동염, 인두염, 근육통, 불면증, 무력/피로, 부종/팽윤, 복통, 흉통 등이었다. 이상반응의 발현율은 남녀, 연령, 인종 간에 차이가 없었다. 아스피린, 페니실린에 대해 과민증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 안면발진 등의 혈관부종으로 인해 투여를 중지하였으나 중지후 5일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한명의 피항자에서 소변당의알은 각질이 벗겨지고 융혈현상이 나타났다.

2) 임상시험에서 ACE 저해제로 인해 기침이 유발되었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였을 때 기침의 재발율은 히드로콜로로이차트 혹은 위약과 유사하였다.
3) 소아 환자, 과성실 비대한 고혈압 환자 및 고혈압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할 것

4) 혈관부종(기도 폐쇄를 야기할 수 있는 후두/성문의 팽윤, 얼굴/인술/인두/혀의 팽윤, 혈관염)Korotkoff-Schönlein 지반병)이나혈액시스성 반응과 같은 과민반응, 간염, 간기능 이상, 빈혈, 혈소판 감소증, 횡문근병성, 미분기침, 고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등이 시판후에 추가로 보고되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할 것.

5. 일반적 주의
과민반응, 간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 전해질 불균형, 고칼륨혈증, 일과성 혈압저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할 것

6. 상호작용
히드로콜로로이차트, 디곡신, 와르파린, 시메티딘, 페노버비탈 등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약은 칼륨-보존성 이뇨제, 칼륨보존제, 칼륨을 함유한 염분(대용제와 병용시 혈청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약의 항고혈압 작용은 선택적 COX-2 저해제를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약해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할 것.

7. 일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일부 이 약의 임부에 대한 사용경험은 없으나, 이 약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태아의 신생아에 손상 과 사망이 나타났다.
2) 수유부: 영아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의 필요성을 고려한 후 수유를 중지하거나 이 약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처방하시기 전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